

敦煌本『大乘起信論』과 註釋書의 校勘學的 研究

A Textual Bibliographic Study on the Dunhuang Edition of
Dasungkisinron and its Commentaries

김 기 화(Kim, Ki-Hwa)*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2 敦煌本『大乘起信論』의 특징 |
| 2. 敦煌本『大乘起信論』의 성립과 내용 | 4. 敦煌本『大乘起信論』의 對校 |
| 2.1 敦煌本『大乘起信論』의 성립 | 4.1 再雕本・房山石經의 對校 |
| 2.2 敦煌本『大乘起信論』의 내용 | 4.2 大正新修大藏經의 對校 |
| 3. 敦煌本『大乘起信論』의 收藏 現況과 特徵 | 5. 맺음말 |
| 3.1 敦煌本『大乘起信論』의 수장 현황 | <참고문헌> |

< 초 목 >

이 연구는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 여러 나라에 散在해 있는 敦煌 문헌 중에서 불교종과의 기본적인 문헌이자 한국 불교의 所依經典 四教科 중 하나인 『大乘起信論』과 그 註釋書의 현황을 파악하여 初雕本과 再雕本, 房山石經 등과 對校를 통하여 내용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敦煌本『大乘起信論』을 재조본・방산석경과 대교한 결과, 내용이 생략되었거나 새로 추가된 경우와 倒置 및 異體字의 형태로 되어 있다. 『大乘起信論』의 주석서로 元曉가 編纂한 『起信論疏』와 大正新修大藏經을 대교한 결과, 省略되었거나 追加된 경우와 異體字 등으로 파악되었다.

要語: 『大乘起信論』, 『敦煌本』, 『起信論疏』, 『海東疏』, 『元曉疏』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okkihwa@hanmail.net)

접수일: 2011년 6월 8일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10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18일

<ABSTRACT>

In this study,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Awakening of Faith in Mahayana(大乘起信論)', one of the basic Buddhist scriptures and 'Four text sutras' of Korean Buddhism, and its commentaries among the Dunhuang manuscripts scattered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China are investigated. And any changes in the contents were examined by comparing its first edition, the second edition(再雕本), and the edition of Bangsanseoggyeong(房山石經).

A comparison of the Dunhuang edition of 'The Awakening of Faith in Mahayana' with the second edition(再雕本) and the edition of Bangsanseoggyeong(房山石經) showed some omissions, additions and inversions of the contents, and the use of characters in different styles in the Dunhuang edition. By comparing Wonhyo's commentary on 'The Awakening of Faith in Mahayana' and 'Daejeong Sinsu Daejanggyeong(大正新修大藏經. Daizokyo)', some omissions, new additions and the characters in different styles were also found.

Key words: *Dasunggisinron*, the Dunhuangbon, *Gisinronso*, *Haedongso*, *Wonhyoso*

1. 머리말

『大乘起信論』은 불교종파의 기본적 문헌으로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불교에서 널리 읽히는 경전¹⁾으로 중시되고 있다. 비록 분량은 적지만 내용면에서는 인도불교 전반에 걸친 불경의 총망라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전이다.²⁾

일반적으로 論書라 하면 어떤 특정한 經을 대상으로 논술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대승기신론』은 일정한 경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개하는 것으로 이론이나 용어가 독창적인 것인 경전이다.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핵심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대승불교의 사상적 입장을 總論한 것으로 불교의 여러 가지 교리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꼭 읽고 가야 할 소중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써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경전이다.

華嚴宗·天台宗·禪宗·淨土宗·眞言宗 등의 대승불교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주석서도 많이 연구되어 있다. 慧遠의 『大乘起信論義疏』와 元曉의 『大乘起信論疏』, 『大乘起信論別記』를 비롯한 法藏의 『大乘起信論義記』 등이 있다. 이들 주석서 중에서도 신라의 元曉가撰한 『起信論海東疏』가 돈황에서 발견되어 영국 대영박물관과 러시아 레닌그라드동양학연구소와 중국 북경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³⁾

원효의 『起信論海東疏』는 慧遠의 『大乘起信論義疏』를 계승하여 唐의 法藏이 지은 『大乘起信論義記』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新羅佛敎가 중국에 전파되어 돈황 지역까지 교류하였다는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

1) 鄭舜日, “大乘起信論의 성립과 構造,” 『동양종교학』 Vol.1(1991), 21.

2) 법공, “대승기신론에 대한 소고,” 『修多羅』(海印寺僧伽大學) 第二號(불기 2532), 97.

3) 定源, “敦煌사본에서 발견된 신라 元曉의 저술에 대하여. 동아시아 고대 불교사본의 연구현황,” 『인문한국(HK)지원사업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초청강연회 및 학술세미나』(2010. 2월 22-23일), 161-175.

『대승기신론』은 한국 불교의 所依經典 四教科 중의 하나로 僧伽大學과 각 사찰에서 專門 講院의 핵심과목으로 교육과 학습 교재로 사용되고 있어 이 불전이 지니는 가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불교의 경론서 가운데 『대승기신론』 만큼 일반에게 잘 알려지고 또 그 만큼 사랑받는 그러면서도 가장 탁월한 내용을 갖춘 것도 드물 것 같다.

따라서 『대승기신론』의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나라에 산재해 있는 돈황 문헌 중에서 『대승기신론』과 그 註釋書의 현황을 파악하여 初雕와 再雕本을 비롯한 房山石經과의 對校를 통하여 본문 내용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敦煌本 『大乘起信論』의 성립과 내용

2.1 敦煌本 『大乘起信論』의 성립

『대승기신론』이 동아시아 불교계에 언제 출현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원 550년경에 인도의 馬鳴보살이 짓고⁴⁾ 553년 남중국으로 건너와 譯經활동을 한 인도출신의 眞諦(499~569)가 한 권으로 譯한 것을 『舊譯起信論』이라고 한다. 이후 700년 唐의 實叉難陀(652~710)가 上·下 2권으로 譯한 것을 『唐譯起信論』 혹은 『新譯起信論』이라고 한다.⁵⁾ 진제와 실차난타 역본의 본문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진제 역본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Sanskrit본이나 Tibet본은 존재하지 않는다.⁶⁾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 시대 후기에 나타난 불교사상서 가운데 가장 뛰어난 논서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 인도에서 대립하고 있던 중관학과와 유가학과와

4) 최연식, “『大乘起信論』과 동아시아불교사상의 전개,” 『불교학리뷰』(금강대학교불교문헌연구소) 창간호(2006. 1), 59-61.

5) 정승식 편저, 『고려대장경해제』 제1권 (고려대장경연구소, 1998), 281-286.

6) 鄭舜日, “大乘起信論의 성립과 構造,” 『동양종교학』(1991), 22-23.

사상을 지양하고 화합시켜 眞과 俗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 범부들이 迷汚한 현실 생활 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끊임없이 추구하고 수행함으로써 완성된 인격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며, 깨달음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아직 염오한 단계에 있는 중생을 이끌어 갈 의무가 있는 것을 주장한다.⁷⁾

사상적 측면에서의 「대승기신론」은 지론종 남도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체계화하여 인도 마명보살의 찬술서로서 성립한 것이다. 이는 당시 불교계에서 유식사상 이외의 집단 및 같은 유식사상 내부의 반대자(북도파)에 대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조말기 이후 지론종 남도파는 섭론학파의 주류와 결합되면서 유식사상계 내부는 물론 불교계 전반의 주류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대승기신론」이 불교계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⁸⁾

화엄교학과 「대승기신론」 사상과의 관계는 초기의 화엄사상이 地論攝論의 양 학파의 영향 하에 있었던 시점에서 7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들 두 학파는 「대승기신론」 이해에서부터, 法藏을 중심으로 한 화엄의 「대승기신론」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법장이후 화엄계에서는 禪과 접촉이 깊어짐에 따라 「대승기신론」의 一心을 圓敎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다. 「대승기신론」에 대한 이해와 華嚴五敎判과의 관계는 법장 자신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사상사적 문제로서 인식하게 되었으며, 주석서에 반영된 이후 법장의 의기를 대신한 宗密의 註疏에도 많이 이용되었다. 또한 종밀의 註疏에 다시 면밀한 주석 자료를 첨가한 송나라의 長水子璿의 「起身論疎筆削記」에 있는 眞如隨緣說이 화엄교학의 事無礙法門의 사상적 근거라고 강조하고 있다.⁹⁾

「대승기신론」 사상 전개는 화엄학계 뿐만 아니라 天台, 眞言, 禪, 淨土 등 여러 종파에 걸쳐 넓혀지고 그 영향이 깊었다. 法相 三論의 二宗의 교학도 「대승기신론」을 직접 依用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는 없었다.

7) 은정희, 「대승기신론강의」 (서울: 예문서원, 2008), 26.

8) 최연식, “「大乘起信論」과 동아시아불교사상의 전개,” 앞의 글, 62.

9) 全鍾植, “「大乘起信論」을 통해 본 法性偈(華嚴一乘法界圖) 연구,” 「불교학」(불교학연구회) 제17호(2007), 115-116.

교학적인 측면의 『대승기신론』은 불교사상의 결정체이자 불교 교학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은 심성함양으로서의 교육본질을 함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경전을 짓게 된 목적의 하나인 ‘부처님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가르침을 잘 해석해서 모든 이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릇되게 알지 않도록 하기 위함’¹⁰⁾이란 구절에서도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다. 즉 반복해서 익힘으로써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어리석음에 물들어 생사를 윤회하는 고통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태종에서 『대승기신론』을 교학에 이용한 것은 제6조의 妙樂大師 荊溪湛然 이후부터이다.

『대승기신론』의 주제는 전통적으로 一心, 二門, 三大, 四信, 五行으로 그 사상적인 내용을 분류시켜 파악하는데, 이는 논의 가장 중요한 一心에 대한 설명이고 이 일심을 眞如門과 生滅門의 二門을 통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전개를 거쳐 궁극에는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은 나아가 실천적인 행위로까지 옮기도록 하는 것이 논의 내용이다.¹¹⁾

『대승기신론』의 주석서는 중국 淨影寺의 慧遠(523~592)이 저술한 『大乘起信論義疏』가 2권 있고, 신라의 元曉(617~686)가 혜원의 주석서를 참고하여 편찬한 『大乘起信論疏』 일명 『起信論海東疏』가 있으며, 唐의 法藏(643~712)이 원효의 주석서를 바탕으로 3권의 『大乘起信論義記』를 찬하였다.¹²⁾ 法藏의 주석서는 원효의 주석을 그대로 옮긴 부분이 많으며 원효의 주석서 내용을 세련되게 정리하거나 표현을 약간 바꾸어 수록한 부분이 많이 있다.¹³⁾ 중국 불교계에서 『대승기신론』이 널리 읽히고 그 사상이 여러 종파의 이론체계에 수용된 것은 華嚴宗의 이론을 집대성한 法藏 이후로 볼 수 있다.¹⁴⁾

법장 이후 曇曠(생물년 미상)은 『大乘起信論廣釋』 5권과 『大乘起信論略述』 2권을 지었다. 담광은 大曆年間(766~778)에 沙州와 敦煌 지역에서 교화활동을

10) 二者爲欲解釋如來根本之義令者衆生正解不謬故.

11) 李箕永, 『元曉思想 1, 世界觀』 (서울: 弘法院, 1967), 14-29.

12) 馬鳴지음, 慈山大師풀이, 송찬우 옮김, 『大乘起信論』 (서울: 세계사, 1993), 10.

13) 朴太源, 앞의 글, 50.

14) 최연식, 앞의 글, 64-65.

하면서 지은 「大乘百法明門論開宗義訣」의 서문에서 “일찍이 장안에서 「起信論」, 「金剛經」 등을 배우고, 후에 돈황지역의 涼城(姑藏), 현재 武威에서 「大乘起信論廣釋」을 짓고, 甘州(張掖)에서 起信銷文인 「大乘起信論略述」을 찬술하였다”¹⁵⁾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大乘起信論略述」의 3문 분별이 원효의 「起信論海東疏」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신론의 첫머리에 있는 歸敬偈의 본문 대조를 보면 元曉疏와 法藏疏를 비롯한 「大乘起信論略述」과의 관련성, 즉 「大乘起信論略述」은 원효소를 참고하여 주석서를 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원효의 「起信論海東疏」는 이후 宗密(780~841)의 「大乘起信論註疏」 4권을 찬하는데 영향을 주고, 종밀의 註疏에 상세히 주석을 한 송의 長水子璿(964~1038)이 저술한 「大乘起信論疏筆削記」 20권에도 인용되었다. 元·明시대에는 「起信論海東疏」의 인용이 적게 이루어졌다.¹⁷⁾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전체의 구역에 근거한 것이다. 명의 智旭(1599~1655)은 실차난타의 신역 기신론에 주석을 붙인 「大乘起信論裂網疏」 6권을 찬하였다.¹⁸⁾

「대승기신론」 주석서에 대한 연구가 한국불교에 있어서는 특이하게도 신라시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元曉(617~686)의 「大乘起信論別記」와 「大乘起信論疏」를 비롯한 「大乘起信論宗要」, 「大乘起信論科簡」, 「大乘起信論大記」, 「大乘起信論私記」, 「起信論一道章」이 있다. 憬興의 「大乘起信論問答」와 緣起의 「大乘起信論珠網」, 「大乘起信論捨繁取妙」를 비롯한 大衍의 「起信論疏」와 「大乘起信論記」도 있다. 또 見登의 「大乘起信論同玄章」과 「大乘起信論同異略集」, 勝莊의 「起信論問答」이 있으며 신라 法相宗의 조사로 추앙되는 太賢의 「起信論內義略探記(起信論古述記」 등이 신라 불교인들에 의한 「대승기신론」

15) 曇曠 撰, 大乘百法明門論開宗義訣의 序文. “始在朔方撰金剛旨贊 次於涼城造起信廣釋 後於甘州撰起信銷文 … 其時巨唐大曆九年歲次寅三月二十三日.”(上山太峻, 「敦煌佛教の研究」(法藏館, 1990), 20).

16) 평위엔 定源 王招國, “敦煌사본에서 발견된 신라 元曉의 저술에 대하여. 동아시아 고대 불교사본의 연구현황,” 「인문한국(HK)지원사업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초청강연회 및 학술세미나」(2010. 2월 22-23일), 174.

17) 평위엔, 앞의 글, 170-171.

18) 全鍾植, 앞의 글, 116.

의 연구 업적들이다.¹⁹⁾

현존하는 주석서는 「대승기신론」의 본문에 따라 일일이 해석을 붙인 元曉의 「大乘起信論別記」와 「大乘起信論疏」가 있고 太賢의 「起信論內義略探記(起信論古述記)」, 見登의 「大乘起信論同異略集」이 전해지고 있다.²⁰⁾

瑜伽宗의 시조인 太賢²¹⁾의 「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起信論古述記)」는 원효의 「大乘起信論疏」와 「大乘起信論別記」를 비롯한 唐의 法藏(643~712)스님의 「大乘起信論義記」를 서로 대조하고 연구하여 정교하게 편집하여 저술하였지만 출전을 일일이 밝히지 않아 발췌한 부분과 요약 및 편집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태현 자신의 독자적 견해나 해석은 찾아보기 곤란하다. 태현의 연구는 원효와 법장의 주석을 세밀히 대조, 음미하여 편집하는 것에 치중한 것으로 파악된다.²²⁾

見登(생물년 미상)의 「大乘起信論同異略集」 2권은 원효와 법장을 존숭하면서 그들의 주석을 빈번하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두 사람이 마련한 기신론 연구에 입각하여 기신론설과 유식설의 同異點을 밝힘으로써 기신론의 사상적 개성과 정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비교 사상적 성과를 이룩하였다.²³⁾

신라 이후 조선시대에는 有一(1720~1799)의 「起信論蛇足」과 義沾(1746~1796)의 「起信論私記」도 연구되어 있다. 이 외에도 시기와 저자미상인 「大乘起信論隨疏補行記」와 「大乘起信論科(海東疏科文)」 등이 있다.²⁴⁾

19) 朴太源, “新羅佛敎의 大乘起信論 研究,”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는문집」(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Vol.14(1994), 49-50.

20) 朴太源, 앞의 글, 50.

21) 생물년 미상으로 호는 靑丘沙門이며 唐에서 唯識佛敎에 대해 공부하고 경덕왕(742~764) 때 귀국하여 경주 남산에 있던 菴長寺에 머물렀다. 華嚴學에도 조예가 깊었다. 사상은 중국에서 활약했던 서명대사 圓測과 그의 제자 道證을 계승하였다. 저술서인 成唯識論學記는 法相宗의 이치를 분석하고 그릇된 점을 고쳐놓아 그 뒤 한국의 후진들과 중국의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현전하는 것은 菩薩戒本宗要·起信論內義略探記·藥師經古述記·梵網經古述記 등 5부 15권만이 전한다.

22) 朴太源, 앞의 글, 51-58.

23) 朴太源, 앞의 글, 59-65.

24) 석길암, “근현대한국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연구사,” 「불교학리뷰」(금강대학교불교문화연구소) 2권(2007), 13.

2.2 敦煌本 「大乘起信論」의 내용

「大乘起信論」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大乘’은 ‘큰 수레’로 ‘중생의 마음’을 비유한 것으로²⁵⁾ 대승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본질의 위대성으로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은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동일하며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현상의 위대성으로 본래부터 타고난 깨달음에는 한량없는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작용의 위대성으로 모든 세속과 깨달음의 세계에서 착하고 선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²⁶⁾

‘起信’이란 중생의 믿음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무엇을 믿는가. 體大 · 相大 · 用大을 믿는다. 체대를 믿는다면 평등법계인 이치가 실제로 있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상대를 믿는다면 본성의 공덕을 갖추어 중생을 훈습하여 마음의 근원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며, 용대를 믿는다면 것은 닦아서 얻을 때에 무궁한 공덕의 작용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²⁷⁾

‘論’이란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데 대한 논을 의미하는 것으로²⁸⁾ 결정적으로 궤범이 될 만한 글을 써서 아주 깊은 法相의 도리를 관설하는 것이니 이 결판의 뜻으로 인해 논이라고 한다. 이 논을 지은 대의는 중생으로 하여금 의혹을 제거하고 잘못된 집착을 버리게 하여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 부처의 과보를 내는 종자인 佛種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²⁹⁾

「대승기신론」은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위로 불도를 넓히고 중생들의 의혹을 제거하고 그들의 잘못된 집착을 버리게 한다는 것은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³⁰⁾

「대승기신론」 내용은 다섯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³¹⁾ 제1 因緣分은 저술동기

25) 은정희, 「대승기신론강의」 (서울: 예문서원, 2008), 136-140.

26) 서광스님 지음,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서울: 불광출판사, 2004), 23-24.

27) 은정희 지음, 「은정희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의」 불교총서 10 (서울: 예문서원, 2010), 39.

28) 은정희, 「대승기신론강의」, 앞의 책, 136-140.

29) 은정희 지음, 「은정희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의」, 앞의 책, 39-40.

30) 은정희 지음, 「은정희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의」, 앞의 책, 39-40.

31) 「論曰 有法能起摩訶衍信根 是故應說 說有五分 云何爲五 一者因緣分 二者立義分 三者解

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論을 짓게 된 여덟 가지 인연을 들고 있다. 고통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의심과 집착을 버리게 하여 다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승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³²⁾이라는 구절이 있다. 저술목적에 대한 내용도 8가지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³³⁾

첫째, 사람들로 하여 생사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해석해서 모두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릇되게 알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중생이 가진 본래 선의 뿌리를 성장시켜서 깨달음을 향한 보살 수행을 통해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넷째, 믿음의 뿌리가 약한 중생으로 하여 믿음을 닦고 익히게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악행의 장애를 없애고 선을 행하는 마음을 보호하고 어리석음과 사되고 그릇된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마음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인연법을 알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다른 중생들도 함께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지 않는 성문과 연각승의 잘못을 바로 고쳐 주기 위함이다.

일곱째, 염불에 전념하여 극락정도에 다시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신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덟째, 수행결과로 얻게 될 이익을 보여주고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리일으키기 위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2 立義分에는 핵심개요인 大乘의 法과 義 뜻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수록하였다. 즉 一心, 二門 三大을 제시하였는데, 일심이란 衆生心이며, 이문은 중생

釋分 四者修行信心分 五者勸修利益分'(서광스님,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서울: 불광출판사, 2004), 17-18).

32) '爲欲令衆生 除疑捨邪執 起大乘正信 佛種不斷故'(서광스님, 앞의 책, 17).

33) 問曰 有何因緣而造此論 答曰 是因緣有八種 云何爲八 一者因緣總相所謂爲令衆生難一切苦・二者爲欲解釋如來根本之義・三者爲令善根成熟衆生・四者爲令善根微少衆生修習信心故・五者爲示方便消惡業障・六者爲示修習止觀・七者爲示專念方便 生於佛前・八者爲示利益勸修行故 有如是等因緣 所以造論….

심의 양면인 心眞如門과 心生滅門을 나타낸다. 삼대란 진여문의 본체인 體大와 생멸문의 相大 그리고 그 작용인 用大이다.

제3 解釋分은 입의분에서 제시한 일심이문을 구체적으로 논술한 것으로 『大乘起信論』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시 바른 뜻을 드러내는 顯示正義와 그릇된 집착을 다스리는 對治邪執, 도에 발심하여 나아가는 모양을 분별한 分別發趣道相을 포함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바른 뜻을 드러내는 부분에서는 일심, 즉 중생심을 일심 중의 청정한 면인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으로 구분한다. 심진여문에서는 번뇌가 없다는 뜻으로 如實空, 번뇌가 없기 때문에 갖가지 청정한 모습이 갖추어 있다는 뜻인 如實不空 등을 말하여 마음의 청정한 면을 묘사하였다. 심생멸문에서는 청정한 여래장심인 염오심과 화합해서, 여래장심과 생멸심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阿黎耶識이라는 것을 내세운다. 이 아라야식에는 깨달은 면인 覺과 무명의 혼습으로 깨닫지 못한 不覺이 있어 혼습에 의한 염정연기를 밝히고 있다.³⁴⁾

제4 修行信心分은 실천수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不定聚 중생 중의 劣人을 위하여 四信, 五行, 他力念佛을 나타내고 있다.

제5 勸修利益分은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한 것으로 단편이지만 치밀한 구성과 풍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예로부터 매우 중시되었다. 그 중 입의분과 해석분은 교리론으로 一心・二門・三大을 말하고 있고, 수행신심분은 실천론으로 四信・五行과 아미타불에 의한 정토왕생의 내용을 담고 있다.³⁵⁾

따라서 『대승기신론』은 모두 한 마음이라는 가르침을 잘 이해하면 반드시 대승불교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한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다.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대승 불교의 중심사상을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진여 연기설, 즉 如來藏 연기설이다.

34) 은정희 지음, 『은정희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의』, 34-35.

35) 金邦龍, “大乘起信論에 관한 연구: 一心・二門・三大思想을 중심으로,” 『韓國宗教』(圓光大學校宗教問題研究所) 第21輯(1996), 89-90.

3. 敦煌本 「大乘起信論」의 收藏 現況과 特徵

3.1 敦煌本 「大乘起信論」의 수장 現況

돈황본 「대승기신론」과 주석서는 영국의 대영박물관과 중국의 북경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레닌그라드 도서관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수장 현황은 敦煌寶藏³⁶⁾과 敦煌遺書³⁷⁾와 敦煌遺書總目索引,³⁸⁾ 俄藏敦煌文獻,³⁹⁾ 俄藏黑水城文獻,⁴⁰⁾ 英藏敦煌文獻,⁴¹⁾ 甘肅藏敦煌文獻,⁴²⁾ 法藏敦煌西域文獻,⁴³⁾ 敦煌吐魯文獻集成⁴⁴⁾의 上海圖書館, 北京圖書館, 天津藝術藏書, 中國國家圖書館 소장본과 웹자료 등에서 소장현황을 파악하여 收藏목록을 작성하였다.

경명별로 「대승기신론」은 斯316, 斯890, 斯5289, 斯6413이 영국대영도서관 소장본으로 斯6413는 역자 미상이며 나머지는 모두 眞諦 역이다. 그리고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본 「대승기신론」인 伯2120, 伯2200과 러시아 레닌그라드 동양학연구소 소장본 孟890(弗141)도 진제 역이다.

영국대영박물관 소장본인 曇曠이 지은 「大乘起信論略述」은 斯964, 斯2431, 斯2436이며, 북경도서관본 北7248, 北7249, 北7250, 北7251과 프랑스국립도서관본인 伯2051, 伯2141(115책), 伯4811, 敦煌遺書의 BD03561, BD06346, BD07740이 조사되었다. 또 曇曠이 지은 「大乘起信論廣釋」인 斯2367, 斯2512, 斯2554,

36) 黃永武 主編, 「敦煌寶藏」(上海: 驪江出版社, 1995).

37) 中國國家圖書館 編·任繼愈 主編, 「敦煌遺書」(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5).

38) 黃永武博士 主編, 「敦煌遺書最新目錄」(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6).

39) 俄羅斯科學院東方研究所聖彼得堡分所·俄羅斯科學出版社東方文學部 編, 「俄藏敦煌文獻」(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40) 俄羅斯科學院東方研究所聖彼得堡分所·俄羅斯科學出版社東方文學部 編, 「俄藏黑水城文獻」(上海: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上海古籍出版社, 1996).

41)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외 3編, 「英國敦煌文獻(漢文佛經以外部分)」(中國: 四川人民出版社, 1995), 235-241.

42) 甘肅成敦煌文獻編輯委員會, 「甘肅藏敦煌文獻」(蘭州: 甘肅人民出版社, 1999).

43) 上海古籍出版社法國國家圖書館 編, 「法藏敦煌西域文獻」(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44) 上海圖書館; 北京圖書館; 天津市藝術博物館藏; 中國國家圖書館. 敦煌吐魯文獻集成, 「敦煌文獻」(上海古籍出版社, 1996).

斯2721, 斯4513, 斯6886은 영국대영박물관본이고 북경도서관소장본은 北7252, 北7253, 프랑스국립도서관본은 伯2412이 있다. 敦煌遺書에 있는 「大乘起信論廣釋」은 BD6295이고 일본의 人中村不折所藏 敦煌遺書目錄(據昭和法寶目錄)인 879도 파악되었다.

신라의 元曉가 지은 「起信論疏」의 영국 대영박물관 도서관본은 斯2675, 斯7520이며 러시아레닌그라드동양학연구소 소장본 ㄱx00824, ㄱx08241B, ㄱx16758과 敦煌遺書에 있는 BD06119, BD12261이 조사되었다.

亡名이 지은 「起信論略述補注」는 영국 대영박물관본으로 斯2587이며 明의 智旭이 지은 「大乘起信論裂網疏」 斯6088도 조사되었다.

法藏이 지은 「大乘起信論義記」 北8623은 북경도서관 소장본이며 智愷가 지은 「大乘起信論序」 伯5581은 프랑스 국립도서관본이다. 역자미상인 「大乘起信論疏釋」 斯2594와 斯41379는 영국 대영박물관본으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 조사된 敦煌本 「대승기신론」의 소장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敦煌本 「대승기신론」의 소장현황

番號	經典名	譯者	所藏番號(卷數・行)	所藏處
1	大乘起信論序	智愷	伯5581(序文 15行)	프랑스국립도서관
2	大乘起信論	眞諦	斯316(1권), 斯890(1권), 斯5289(1권)	영국대영박물관
			伯2120(1권), 伯2200(1권)	프랑스국립도서관
		[]	斯6413(권上)	영국대영박물관
		[]	孟890(弗141)	러시아레닌그라드동양학연구소
3	起信論疏	元曉	斯7520(권下)	영국대영박물관
			ㄱx00824(9行), ㄱx08241B(10行), ㄱx16758(3行)	러시아레닌그라드동양학연구소
			BD06119(12行), BD12261(5行)	돈황유서
4	大乘起信論義記	法藏	北8623(권5)	북경도서관
5	大乘起信論略述	曇暎	斯964(권上・下), 斯2431(권上), 斯2436(권上)	영국대영박물관
			伯2051(권下), 伯2141((권上), 伯4811(10行)	프랑스국립도서관

番號	經典名	譯者	所藏番號(卷數・行)	所藏處
5	大乘起信論略述	曇曠	北7248(권上), 北7249(권上), 北7250(권下), 北7251(권下)	북경도서관
			BD03561(권下), BD06346(권上) BD07740(권下)	돈황유서
6	大乘起信論廣釋	曇曠	斯2367(권3완질), 斯2512(권5), 斯2554(권3완질), 斯2721(권4), 斯4513(권5), 斯6886(권4)	영국대영도서관
			北7252(권3), 北7253(권5)	북경도서관
			BD6295(권3)	돈황유서
			伯2412(낙질)	프랑스국립도서관
7	起信論略述補注	亡名	斯2587	일본인중촌불절소장
8	大乘起信論裂網疏	智旭	斯6088(권6)	영국대영박물관
9	大乘起信論疏釋	[]	斯2594(낙질), 斯4137(낙질)	영국대영박물관
10	大乘起信疏	[]	斯2675(권上)	영국대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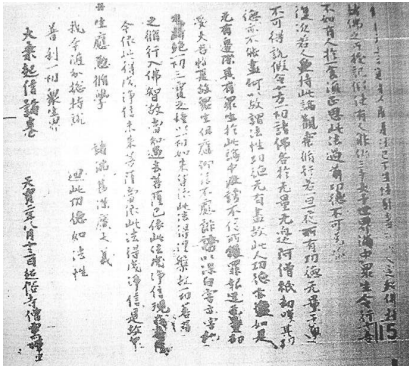
[]는 저자미상을 나타냄.

<표 1>에서 보면 전체 10종으로 이 중에서 5~6세기 진제 역의 『大乘起信論』이 5건, 주석서로는 7세기에 원효가 편찬한 『起信論疏』가 6건, 7~8세기에 담광이 찬한 『大乘起信論略述』 13건과 『大乘起信論廣釋』이 11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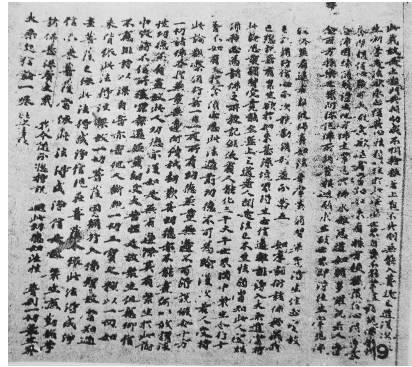
3.2 敦煌本 「大乘起信論」의 특징

돈황본 「대승기신론」의 권말에 기록된 필사시기와 장소, 필사자의 신분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승기신론」 斯316은 眞諦 譯으로 권말에 “天寶二年八月十三日趙俗寺僧[] [寫]”로 743년 趙俗寺의 승려가 필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斯890도 진제 역으로 권말에 “大乘起信論一卷毗義”가 표기되어 있는데, ‘毗義’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그림 1> 「大乘起信論」 斯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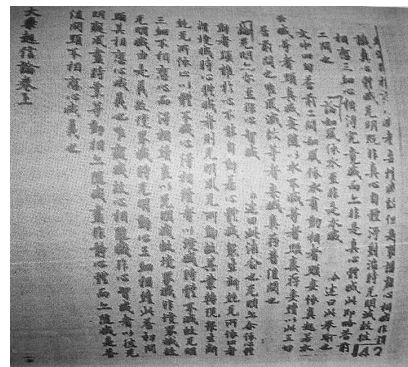


「大乘起信論」 斯890

斯5289는 진제 역으로 1장의 12행만 수록되어 있고 斯6413은 앞부분 缺落으로 인해 본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결락으로 정확하게 진제가 번역한 것인지 실차난타 역인지 알 수 없지만 권말에 “大乘起信論卷上”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차난타 역으로 추정된다.



<그림 2> 「大乘起信論」 斯5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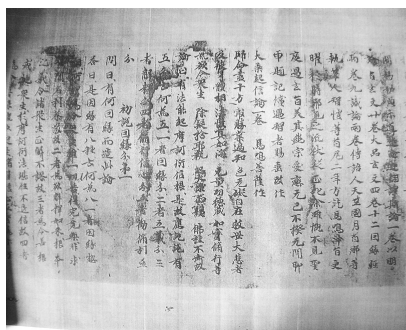


「大乘起信論」 斯6413

프랑스 국립도서관소장본 「대승기신론」 伯2120은 진제 역으로 分第二에서부

더 分第五까지 본문을 구분하여 ‘分第’라는 소제목을 붙였으며 水浸 흔적과 계선이 표기되어 있다. 伯2200도 진제 역으로 1장은 缺落되었고 수침 흔적이 보이며 본문을 分第一부터 分第五로 구분하였으며 계선이 수록되어 있다.

伯5581은 「大乘起信論序」로 서문 15행이 수록되어 있는데 권수제에 “楊洲智愷作”으로 楊洲에서 智愷가 지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권말에 “以大梁承聖三年歲次癸酉九月十日於衡州始興郡建興寺”로 554년 9월 衡州 始興郡에 있는 建興寺에서 기신론을 번역하였다⁴⁵⁾는 기록이 있다. 智愷(518~568)는 진제의 수제자로 기신론 서두에 있는 서문은 후대 만들어진 偽書라고 하는데 속장경 중에 기신론 강요서로서 一心二門大意 1권이 그의 저작으로 현존하고 있다.



<그림 3> 「大乘起信論」 伯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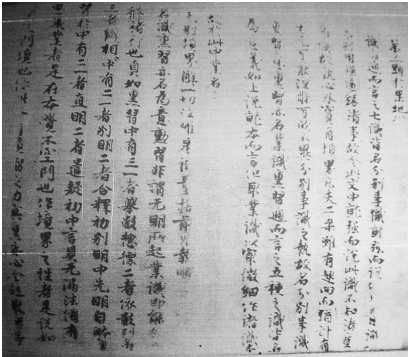
「大乘起信論序」 伯5581

「대승기신론」 주석서로 신라 元曉가 지은 「起信論疏(元曉疏)」가 조사되었는데, 이는 慧遠이 편찬한 「大乘起信論義疏」 상·하권을 계승하여 지은 것이다. 영국 대영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斯7520은 「기신론소」 하권에 대한 내용이 15행 정도 수록되어 있고 보통 1행에는 23자로 되어 있다. 본문이 전체적으로 희미하고 특히 상단부분이 더 희미하여 판독이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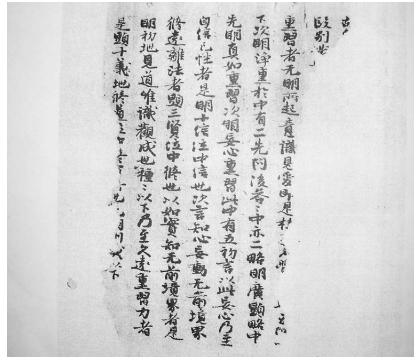
중국국가도서관에도 「기신론소」 하권에 해당되는 내용 5행이 기록된 BD12261

45) 방산석경에 수록된 智愷의 서문에 “以大梁承聖三年。歲次癸酉九月十日。於衡州始興郡建興寺。敬請法師敷演大乘。闡揚祕典。示導迷徒。遂翻譯斯論一卷。”

이 있고 러시아 동양학연구소에도 하권 9행이 수록된 dx00824와 상권 10행이 표기된 dx08241B, 하권의 3행이 표기된 dx16758⁴⁶⁾은 훼손으로 인한 결손이 심하여 10자 정도만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하다.



<그림 4> 元曉의 「起信論疏」 斯7520



「起信論疏」 dx00824

BD06119는 「기신론소」 하권의 마지막 부분으로 12행이 수록되어 있다. 1행에는 보통 22자로 되어 있고 상단에 1~2자 결손된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 판독이 가능하다.

法藏 스님이 원효의 「起信論海東疏」를 계승하여 지은 「大乘起信論義記」인 北8623은 권5의 낙질로 권제7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하단부분에 훼손이 심하며 본문에 계선이 그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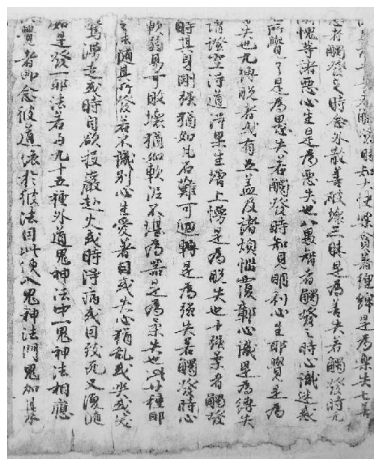
曇曠이 주석한 「大乘起信論略述」의 斯964는 상권 43행과 하권10행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문 내용이 너무 흐려서 판독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다. 斯2436도 「大乘起信論略述」 상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권말에 “寶應貳載玖月初, 于沙州龍興寺寫記”란 기록으로 763년 9월에 沙州에 있는 龍興寺에서 필사하였다는

46) 평위엔, 앞의 글에서는 원효의 대승기신론소(해동소)가 斯7520, dx00824, dx08241B, dx16758, BD12261로 5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敦煌遺書 BD06119로 1건이 추가되어 총 6건으로 조사되었다.

것을 알 수 있다. 龍興寺는 중국 河北省 正定縣에 있는 큰 사찰로 唐代의 龍興寺터를 송대에 再興하여 융흥사로 개명하였으며 많은 불교경전을 필사한 곳이기도 하다.



<그림 5> 「起信論疏」 dx16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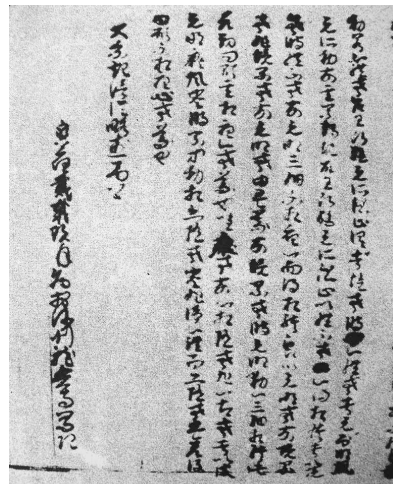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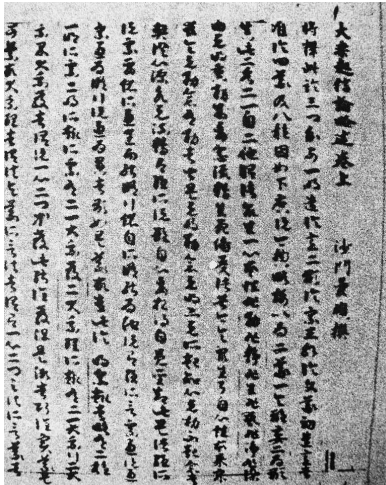


「起信論疏」 BD06119

曇曠이 찬한 주석서인 『大乘起信論廣釋』인 斯2367은 권3의 완질본으로 뒷장으로 갈수록 희미하게 계선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내용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ㅍ으로 표기한 곳도 간혹 보인다.

智旭(1599~1655)이 저술한 주석서인 6권의 「大乘起信論裂網疏」 斯6088에는 31행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경전은 실차난타가 譯한 기신론을 천태의 입장에서 주석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⁴⁷⁾

47) 全鍾植, “大乘起信論을 통해 본 法性偈(華嚴一乘法界圖)연구,” 『불교학연구』 Vol.17(2007), 115-116.



<그림 6> 「大乘起信論略述」 斯2436 권수제와 권말

이외에도 「大乘起信論」의 주석서로는 「起信論略述補注」인 斯2587은 상단이 훼손되어 판독이 어렵고 小字로 표기되어 있으며 「大乘起信論疏釋」 斯4137은 본문 상·하단이 훼손되어 내용을 판독하기 곤란하다.



<그림 7> 「大乘起信論義記」 北8623

「大乘起信論裂網疏」 斯6088

4. 敦煌本 「大乘起信論」의 對校

4.1 再雕本 · 房山石經의 對校

현존하는 돈황본 「대승기신론」에는 實叉難陀 譯이 없고 眞諦 譯이 있고 남선사 소장 초조본에는 진제 역이 없고 실차난타 역이 있어 돈황본 「대승기신론」과 초조본의 대교는 곤란하다.

남선사 소장 초조본 「대승기신론」 卷上의 물리적 형태를 보면 馬鳴菩薩造 三藏 實叉難陀奉 制譯으로 麗本函次는 盡(南禪寺 命)이며 5行씩 折帖 形態로 改裝하였다. 전체 21장으로 紙匣이 있고, 序文은 3장이며 표지서명이 ‘新譯大乘起信論序’로 표기되어 있다. 변란에 朱印이 있고 마지막장에는 판수제가 없으며 충식과 수침의 흔적이 나타나 있다. 제침서명은 “大乘起信論卷上”으로 되어 있다.

남선사 소장 「대승기신론」 초조본인 실차난타 역과 재조본을 대교해 본 결과, 초조본에는 竟 · 鏡字의 訛誤 結核이 있지만 재조본에는 없고, 초조본에서의 ‘惟’字가 재조본에는 ‘唯’로 표기되어 있다. 초조본에 없는 ‘大周于闐’이 재조본의 ‘三藏’ 앞의 문장에 수록되어 있다.

北京 인근의 雲居寺의 房山石經은 河北省 平山縣의 서북에 있는 房山에서 隋의 靜琬法師가 大業 初年(605)부터 불경을 새긴 이래로 唐 · 遼 · 金 · 元代에 걸쳐 14,278개의 돌에 불교경전을 새긴 방대한 양을 刻經한 것이다. 방산석경은 목판본 경전의 오류를 바로 잡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고 그 밖에 금석학과 書法 연구는 물론 여러 방면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방산석경에는 진제의 제자인 智愷가 지은 기신론서가 수록되어 있다.

진제 역의 돈황본 「대승기신론」은 伯2120, 伯2200, 斯316, 斯890, 斯5289, 斯6413으로 이 중에서 斯6413은 落帙로 내용을 판독할 수 없어 校勘에서 제외하였다.

돈황본 「대승기신론」 진제 역과 재조본 · 방산석경과의 대교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돈황본 斯5289에 표기되어 있는 ‘梁西眞諦譯’이 재조본에서는 ‘梁西印度三藏

法師眞諦譯’으로 ‘印度三藏法師’가 추가되어 있으며 房山石經에서는 ‘梁天竺三藏眞諦譯’으로 ‘天竺三藏’이 새로 표기되어 있다. 재조본의 ‘西印度’를 방산석경에서 ‘天竺’으로 나타내고 있다. ‘者’가 재조본과 방산석경 및 伯2120에서는 ‘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문맥상 앞 문장에는 ‘…大悲者’로 뒷 문장에는 ‘…修行等’으로 수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等’은 佛이 중생과 함께 하며 중생을 제도하는 것과 같은 後得智의 行을 의미하는 하는 것으로 즉 공덕을 수행하는 주체는 사람으로 ‘者’와 같은 의미로 ‘等’을 수록한 것이라 생각된다.

‘熏習’이 743년에 필사된 斯316에는 수록되어 있고, 斯890, 伯2120, 伯2200에는 없다. 원문은 ‘此體用熏習 分別復有二 種云’으로 ‘이 체용의 훈습을 분별함에 다시 두 가지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熏習’이란 범어 vasana의 번역이다. ‘熏’은 향기를 옷에 배게 하는 것 같이 미혹과 깨달음의 일체 현상들이 자신의 세력을 다른 것에게 훈습 시키는 것을 말한다. 훈습은 유식사상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여래장사상에서만 발견되는 것인데 ‘淨法’ 즉 眞如가 染法 곧 無明을 물들이거나 그로부터 물들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苦’와 ‘樂’을 이전에 행했던 업(Karma)의 果報로 보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불교 교리인 業說이다. 그런데 유식불교는 그러한 업이 다시 행위자 자신의 미래의 행위를 유발하는 힘(習氣)이 있음에 주목하고 그것을 ‘薰習’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기신론의 체계는 중생이 본각으로서의 여래장인 인과 불보상인 緣에 근거하여 시각을 일으키고, 시각을 완성함으로써 깨달은 이들이 다시 다른 중생들에게 본각이 되어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로 ‘起身’이 廻向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⁴⁸⁾

훈습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명훈습으로 무명이 진여에 훈습되어 업식 내지 分別事識의 망령된 마음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는 妄心이 무명에 훈습되어 생사의 고통을 나타내는 망심훈습이다. 셋째는 번뇌에 오염되어 청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염법훈습과 넷째는 정법훈습으로 보살을 발심 수행시키는 망심훈습과 청정한 법인 진여가 망심에 훈습되어 자신의 몸에 진여법이

48) 고승학, “大乘起信論에서 깨달음과 薰習의 관계,” 『불교학연구』 제4호(2002. 6), 89-108.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진여훈습을 설명한 것이다. 이처럼 ‘훈습’이 내용상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斯316에만 수록 되어 있고 나머지 돈황본에는 없는데 필사 과정에서 앞문장과 뒷문장 모두 ‘훈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계속 중복되어 생략한 것으로 추정된다.

‘眞實識知義故’도 돈황본 斯890, 伯2120, 伯2200에는 없지만 斯316에만 수록 되어 있어 앞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하게 필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생각된다.

‘値’와 ‘能’을 비롯한 ‘无別異故’, ‘使’, ‘決’, ‘二’는 돈황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방산석경과 재조본에만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후대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판단된다.

‘又爲’가 斯890과 伯2200에서는 ‘又凡’으로, 伯2120에서는 ‘復次’로 수록되어 있는데 ‘又爲’는 ‘또한’, ‘한편’이란 뜻으로 사용되며 ‘又凡’은 ‘또’로 ‘復次’는 ‘다음으로’ 혹은 ‘또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글자는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또’란 뜻으로 ‘又是’도 본문에 수록되어 있다.

‘身’은 斯316에만 없고 斯890과 伯2120, 伯2200, 방산석경, 재조본에는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원문은 ‘說爲應’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는 ‘應化身’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상 본문에 ‘身’을 생략할 수 없는 것으로 아마 필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 내용 중에서 ‘藏亦名如來’와 ‘復次’, ‘樂’과 ‘故’, ‘諸佛’도 伯2200, 斯316, 斯890, 斯5289, 방산석경, 재조본에는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지만 伯2120에만 없어 아마 필사할 때에 빠뜨린 것으로 생각된다.

‘念’이 伯2120에만 ‘起’로 수록되어 있고 돈황본과 재조본 및 방산석경에는 동일하게 ‘念’으로 표기되어 있다. 원문은 ‘知心無念’으로 ‘마음은 생각이 없는 무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誤字로 판단된다.

재조본과 방산석경, 斯316의 본문에 표기된 ‘不令’이 斯890, 伯2120, 伯2200에는 ‘令不’로 도치되어 있는 것으로 ‘~하지 않게 하다’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不’은 조동사로 혼자 독립되어 쓰이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다른 동사 위에 얹혀 그 동사와 더불어 쓰이는 것이 오늘날 문법의 구조라면 당시 중국어의 문법

차이로 위치가 바뀐 것이라 생각된다.

재조본과 방산석경에 수록된 ‘有所施作’이 斯316에서는 ‘所作之事’로 내용이 변화되어 있으며, 斯890, 伯2120, 伯2200에는 ‘之事’가 생략되어 ‘所作’만 표기되어 있다. 원문은 ‘若從坐起去來進止有所施作’으로 ‘앉아있을 때에는止를 닦는 것이 당연하지만 앉았다가 일어나 가거나 오거나 나아가거나 머물거나 할 때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할 일이 있더라도 항상止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각각 다른 문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재조본과 방산석경에 수록된 ‘之所惑亂’을 伯2120에는 ‘所惑’으로만 수록되어 있다. 뜻은 ‘惑亂을 당하다’와 ‘어지럽힘을 받고’, ‘~들에 의해 어지럽게 된다’는 것으로 의미상 ‘之亂’과 ‘所惑’으로 문장을 구분해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돈황본에서 ‘之亂’을 생략한 것으로 판단된다.

‘涅槃故一切菩薩’과 ‘因之修行入佛智故當知過去菩薩’, ‘依此法’, ‘德’ 등은 돈황본에는 없는데, 재조본과 방산석경에는 수록되어 있다. 이는 후대에 간행할 때 내용을 새로 추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진제 역인 돈황본과 재조본·방산석경과 대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敦煌本「大乘起信論」과 再雕本房山石經의 對校

번호	再雕本		房山石經	斯316 743년 13/13/6~	斯890 3/23/14~	斯5289 1/1/1~ 1/12/20	伯2120 2/10/14 ~34/19 /7	伯2200 (완결)	伯5581 554년 序文 15행
	張/行/字	해당자							
1	1/2/9	造	造	[]	[]	作	[]	作	作
2	1/3/7~10	梁西印度三藏法師真諦譯	梁天竺三藏真諦譯	[]	[]	梁西真諦譯	[]	없음	없음
3	1/6/10	等	等	[]	[]	者	[]	等	[]
4	1/21/7	障	障	[]	[]	[]	[]	鄣	[]
5	2/1/1	治	治	[]	[]	[]	[]	法	[]
6	2/20/8	法	法	[]	[]	[]	없음	法	[]
7	3/8/3	分	分	[]	[]	[]	없음	없음	[]
8	3/16/8	妄	妄	[]	[]	[]	心	心	[]
9	4/19/13	故	故	[]	則	[]	則	則	[]

번호	再雕本		房山石經	斯316 743년 13/13/6~	斯890 3/23/14~	斯5289 1/1/1~ 1/12/20	伯2120 2/10/14 ~34/19 /7	伯2200 (완결)	伯5581 554년 序文 15행
	張/行/字	해당자							
10	11/5/13	智	智	[]	義	[]	義	義	[]
11	11/11/1	和	和	[]	智	[]	智	智	[]
12	11/23/4	相	相	[]	없음	[]	없음	없음	[]
13	13/7/13	謂	謂	[]	없음	[]	없음	없음	[]
14	13/21/8	故	故	故	없음	[]	故	없음	[]
15	14/10/7	沙	沙	河	河	[]	河	河	[]
16	14/17/11	值	值	없음	없음	[]	없음	없음	[]
17	15/2/1	故	故	없음	없음	[]	없음	없음	[]
18	15/20/6~7	熏習	熏習	熏習	없음	[]	없음	없음	[]
19	15/23/3	能	能	없음	없음	[]	없음	없음	[]
20	16/14/1~6	眞實識知義故	眞實識知義故	眞實識知義故	없음	[]	없음	없음	[]
21	16/18/5~9	藏亦名如來	藏亦名如來	藏亦名如來	藏亦名如來	[]	없음	藏亦名 如來	[]
22	17/7/2	知	知	智	知	[]	智	知	[]
23	17/20/6~9	无別異故	无別異故	없음	없음	[]	없음	없음	[]
24	18/15/13	又	又	又	又	[]	復	又	[]
25	18/15/14	爲	爲	爲	凡	[]	次	凡	[]
26	18/18/2	身	身	없음	身	[]	身	身	[]
27	18/18/4~5	復次	復次	復次	復次	[]	없음	復次	[]
28	18/22/1	以	以	以	己	[]	以	己	[]
29	19/17/12	念	念	念	念	[]	起	念	[]
30	19/23/10	寔	寔	漢	漢	[]	漢	漢	[]
31	20/3/13/	今	今	今	見	[]	今	見	[]
32	20/11/7	已	已	以	없음	[]	已	없음	[]
33	21/5/14	故	故	없음	없음	[]	故	없음	[]
34	23/3/7	云	云	云	없음	[]	없음	없음	[]
35	23/3/9	爲	爲	爲	等	[]	等	等	[]
36	23/4/11	樂	樂	樂	樂	[]	없음	樂	[]
37	23/15/14	故	故	故	故	[]	없음	故	[]
38	23/22/5~6	不令	不令	不令	令不	[]	令不	令不	[]
39	24/19/9	令	令	없음	없음	[]	令	없음	[]
40	24/19/10	使	使	없음	없음	[]	없음	없음	[]
41	25/6/10	知	知	없음	知	[]	知	知	[]
42	26/13/4	知	知	解	知	[]	知	知	[]
43	26/13/6	解	解	知	解	[]	解	解	[]
44	26/13/14	想	想	想	相	[]	相	相	[]
45	26/17/7	決	決	없음	없음	[]	없음	없음	[]

敦煌本「大乘起信論」과 註釋書의 校勘學的 研究

번호	再雕本		房山石經	斯316 743년 13/13/6~	斯890 3/23/14~	斯5289 1/1/1~ 1/12/20	伯2120 2/10/14 ~34/19 /7	伯2200 (완질)	伯5581 554년 序文 15행
	張/行/字	해당자							
46	27/3/13	而	而	說	없음	[]	없음	없음	[]
47	27/4/11	心	心	者	心	[]	心	心	[]
48	28/2/3	所	所	所	없음	[]	없음	없음	[]
49	28/3/5	言	言	語	言	[]	言	言	[]
50	28/5/11	寂	寂	家	寂	[]	寂	寂	[]
51	28/16/11	來	來	來	來	[]	已	來	[]
52	28/22/14	止	止	止	止	[]	上	止	[]
53	28/23/5	止	止	止	止	[]	上	止	[]
54	29/2/9	鉢	鉢	摩	婆	[]	婆	婆	[]
55	29/3/7	二	二	없음	二	[]	二	二	[]
56	29/13/6~9	有所施作	有所施作	所作之事	所作	[]	所作	所作	[]
57	29/19/2	如	如	없음	없음	[]	없음	없음	[]
58	30/1/1~4	之所惑亂	之所惑亂	없음	없음	[]	所惑	없음	[]
59	30/2/9	唯	唯	惟	惟	[]	惟	惟	[]
60	31/5/8~9	味着	味着	味着	味着	[]	着味	味着	[]
61	31/9/10~11	諸佛	諸佛	諸佛	諸佛	[]	없음	諸佛	[]
62	32/9/2	所	所	所	世	[]	世	世	[]
63	32/19/1	止	止	上	止	[]	上	止	[]
64	32/19/7	雖	雖	없음	雖	[]	雖	雖	[]
65	33/3/4	二	二	없음	없음	[]	없음	없음	[]
66	34/12/8~14	涅槃故一切 菩薩	涅槃故一切 菩薩	없음	없음	[]	없음	없음	[]
67	34/13/1~14	因之修行入佛 智故當知過去 菩薩	因之修行入佛 智故當知過去 菩薩	없음	없음	[]	없음	없음	[]
68	34/14/1~4	已依此法	已依此法	없음	없음	[]	없음	없음	[]
69	34/14/5	得	得	없음	得	[]	없음	없음	[]

[] 표시는 본문내용이 없어 판독이 불가능한 것을 나타냄.

4.2 大正新修大藏經의 對校

돈황본 「대승기신론」의 주석서인 「起信論疏」는 신라의 원효가 찬한 것으로 현재 영국의 대영박물관과 중국국가도서관, 러시아 동양학연구소 등에 소장되어

있는 『元曉疏』에 대한 물리적 형태로 斯7520는 해서체로 15행이 수록되어 있는데, 1행과 8행은 각각 6자씩 표기되어 있다. BD12261은 5행정도 수록되어 있는데 상·하단이 훼손으로 인해 몇 자만 판독이 가능하고 『元曉疏』 권하에 대한 내용이다. dx08241B는 행서체로 10행만 수록되어 있으며 6~7행 이외의 다른 행의 앞쪽 부분이 적게도 한 글자에서 많게는 여러 글자가 결손되어 있다. BD06119는 해서체로 『기신론소』 하권 12행이 수록되어 있다.

dx 16758은 행서체로 3행의 10자 정도만 판독이 가능하여 대교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처럼 돈황본 『기신론소』는 완질본이 하나도 없고 몇 행만 수록되어 있다. 돈황본 『기신론소』와 신수대장경을 대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D061199의 3行 ‘爲’과 4행의 ‘所’와 6행의 ‘道何’는 신수대장경에 없는데, 이 중에서 6행의 내용은 ‘謂證空得道何果生增上慢’이 신수대장경에서 ‘謂證空得果, 生增上慢’으로 ‘혹은空을 증득하여 果를 얻었다고 여겨서 增上慢를 낸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4행의 ‘耶’는 ‘邪’로 5행의 ‘蓋’는 ‘蓋’로 나라이름 ‘鄴’이 가로막을 ‘障’으로 되어 있으며 8행의 ‘廿’은 ‘二十’으로 표기되어 있다. 12행의 ‘依’가 신수대장경에는 ‘行’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본문은 ‘行於彼法’으로 ‘저 법에 의한 것이니, 혹은 저 법을 행하는 것이니’로 해석할 수 있다.

dx00824의 2行의 ‘別’이 대정신수대장경에는 생략된 것으로 ‘分段別苦’를 나타내는데 ‘分段’에 대응하여 ‘別苦’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가능하게 된다. 돈황본 7행의 ‘者’가 신수대장경에는 ‘者是’로 수록되어 있는데, 본문은 ‘修遠離法者, 是顯三賢位中修也’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者, 是…’의 문장으로 원효소에 자주 사용되며 그 뜻은 ‘…은 …이다’를 나타내고 있다.⁴⁹⁾

dx00824의 8-9行에 ‘乃至久遠熏習力故者是顯十義地修道位中修萬行也’에 있는 ‘者’와 ‘義’는 신수대장경의 본문 ‘乃至久遠熏習力故是顯十地修道位中修萬行也’로 두 字는 없다. 돈황본 ‘者’와 ‘義’를 자세히 보면 두 글자 위에 희미하게 점이 있는 것으로 아마 衍文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dx08241B 2행 ‘往’이 신수대장경에는 ‘往來’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卽此法身

49) 평위엔, 앞의 글, 167 참고.

爲諸煩惱之所漂動往來生死’로 표기되어 있다. 이 내용은菩提流支 역의 『佛說不增不減經』 권1⁵⁰⁾의 원문과 동일하므로 돈황본에서 ‘來’를 빠뜨리고 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6행의 ‘現’도 신수대장경에는 ‘現於’로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謂依能見。現於境相’으로 표기되어 있다. 의미상 ‘於’는 전치사의 줄임으로 대상인 ‘境相’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돈황본에서는 ‘於’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8행의 ‘是’는 신수대장경에서 ‘是阿’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此三皆是阿梨耶識位所有差別’로 ‘阿梨耶’를 뜻하는 것으로 돈황본에서 ‘阿’를 누락시킨 것이라 생각된다.

斯7520의 2행에 있는 ‘遍’이 ‘通’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문장을 보면 ‘…識者。通而言之’와 ‘以分別用強通緣諸事故’로 되어 있지만 돈황본 ‘遍’과 ‘通’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원효소 권상의 다른 부분의 본문과 『大乘起信論別記』의 문장에서도 ‘以分別用強通緣諸事故’ 표기되어 있다. 평위엔의 발표문에는 이런 이유를 들어 앞뒤의 문맥에 있어 돈황본에 ‘遍’字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다.⁵¹⁾

斯7520의 6행에 있는 ‘習’은 신수대장경에는 ‘者’를 추가하여 ‘習者’로 앞뒤 문맥상 돈황본에서 ‘者’字를 탈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8행의 ‘業’이 신수대장경에는 ‘業識’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돈황본의 다른 부분의 본문에서는 ‘但取業識’과 ‘非讀無明所起業識’처럼 ‘業識’을 함께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돈황본에서 ‘業’字 다음에 ‘識’을 실수로 누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12행의 ‘辯’이 신수대장경에서 ‘辨’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이체자로 표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斯7520의 14행 2자 ‘說’이 신수대장경에는 ‘就’로 14행 7자의 ‘境’은 ‘境說’로 되어 있는데, 돈황본 내용은 ‘是說如實空門境也’가 신수대장경에서는 ‘是就如實空門境說也’로 표기되어 있다. 두 내용의 구조는 다르지만 의미는 바뀌지 않는 것으로 중국어 문법에는 동사로서의 ‘說’은 앞에 놓는 것이 통례이지만 고대 新羅

50) 『佛說不增不減經』 권1. ‘即此法身過於恒沙 無邊煩惱所 … 隨順世間波浪漂流 往來生死 名爲衆生.’ 평위엔, 앞의 글, 167 재인용.

51) 평위엔, 앞의 글, 168 참고.

나 일본어에서는 ‘說’을 뒤에 놓는 것이 문법에 보다 가깝다고 하였다.⁵²⁾

BD12261의 5행에 ‘碍石’이 신수대장경에는 ‘礙’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체자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大乘起信論』의 주석서로 元曉가 編纂한 『起信論疏』와 大正新修大藏經을 대교한 결과, 省略되었거나 追加된 경우와 異體字 등으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起信論疏』를 大正新修大藏經과 對校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돈황본 『起信論疏』와 大正新修大藏經의 對校

번호	斯7520	BD12261	BD061199	ㄷx00824	ㄷx08241B	大正新修 大藏經
	·	·	·	2行 2字-別	·	없음
	·	·	·	·	2行 2字-往	往來
	2行 3字-遍					通
	3行 5字-遍	·	·	·	·	通
	·	·	3行 8字-爲	·	·	없음
	·	·	4行 18字-耶	·	·	邪
	·	5行1·2字-碍石		·	·	礙
	·	·	5行 10字-盖	·	·	蓋
	·	·	5行 16字-鄣	·	·	障
	·	·	·	·	6行 2字-現	現於
	·	·	6行5·6字-道何	·	·	없음
	6行 5字-習	·	·	·	·	習者
	·	·	·	7行 5字-者	·	者是
	·	·	·	·	8行 3字-是	是阿
	8行 5字-業	·	·	·	·	業識
	·	·	8行 21字-廿	·	·	二十
	·	·	·	8行22字-者	·	없음
	·	·	8行 23字-耶	·	·	邪
	·	·	·	9行 4字-義	·	없음
	10行 2字-識	·	·	·	·	業

52) 평위엔, 앞의 글, 168.

번호	斯7520	BD12261	BD061199	Дх00824	Дх08241B	大正新修 大藏經
	10行 9字-動	·	·	·	·	熏
	·	·	11行 5字-耶	·	·	邪
	12行 3字-辯	·	·	·	·	辨
	·	·	12行 7行-依			行
	12行 23字-體	·	·	·	·	體
	14行 20字-說	·	·	·	·	就
	15行 10字-境	·	·	·	·	境說

· 표시는 대정신수대장경의 내용과 동일함을 나타냄.

이외의 돈황본 주석서인 「大乘起信論略述」과 「大乘起信論廣釋」, 「大乘起信論義記」 등을 대정신수대장경과 대교한 결과 본문내용의 변화는 없고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간혹 대정신수대장경의 ‘無’가 「大乘起信論略述」에서는 ‘无’로 표기되어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돈황본 「대승기신론」과 재조본 및 방산석경, 신수대장경본을 중심으로 對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敦煌寶藏과 敦煌遺書, 甘肅藏敦煌文獻, 法藏敦煌西域文獻 등에 수록된 「대승기신론」과 주석서는 44건으로 이들 중에서 「대승기신론」 진제 역은 5건, 저자미상 2건, 「기신론소(원효소)」 6건, 「대승기신론약술」 13건, 「대승기신론광석」 11건을 포함한 37건이 주석서들이다.

둘째, 「大乘起信論序」 伯5581은 서문 15행이 수록되어 있고 권말에 “以大梁承聖三年。歲次癸酉九月十日。於衡州始興郡建興寺”로 554년 建興寺에서 智愷가 번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대승기신론」 斯316의 권말에 “天寶二年八月十三日趙俗寺僧[卍]寫”로 743년 趙俗寺의 승려가 필사하였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斯2436 권말에 “寶應貳載玖月初, 于沙州龍興寺寫記”로 763년 龍興寺에서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 사성기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아 돈황본 『대승기신론』과 주석서들은 사찰에서 6세기부터 8세기까지 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돈황본 『대승기신론』의 주석서들이 대부분 8세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승기신론』은 진제 역과 실차난타 역이 있는데 돈황본에는 대부분이 진제 역이다. 초조본 『대승기신론』에는 진제 역이 없어 돈황본과 교감은 곤란하다.

진제 역의 돈황본과 재조본을 對校한 내용을 보면 재조본 1장 3행에 수록된 ‘梁西印度三藏法師真諦譯’이 斯5289에서는 ‘梁西真諦譯’으로 ‘印度三藏法師’가 생략되어 있으며 房山石經에서는 ‘梁天竺三藏真諦譯’이라 하여 ‘西印度’를 ‘天竺’으로 나타내고 있다. ‘者’가 재조본과 방산석경 및 伯2120에서는 ‘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문맥상 앞 문장에는 ‘…大悲者’로 뒷 문장에는 ‘…修行等’으로 수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等’은 佛이 중생과 함께 하며 중생을 제도하는 것과 같은 後得智의 行을 의미하는 하는 것으로 즉 공덕을 수행하는 주체는 사람으로 ‘者’와 같은 의미로 ‘等’을 수록한 것이라 생각된다.

‘眞實識知義故’도 돈황본 斯890, 伯2120, 伯2200에는 없지만 斯316에만 수록되어 있어 앞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하게 필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생각된다. ‘值’와 ‘能’을 비롯한 ‘无別異故’, ‘使’, ‘決’, ‘二’는 돈황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방산석경과 재조본에만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후대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판단된다.

‘又爲’가 斯890과 伯2200에서는 ‘又凡’으로, 伯2120에서는 ‘復次’로 수록되어 있는데 ‘又爲’는 ‘또한’, ‘한편’이란 뜻으로 사용되며 ‘又凡’은 ‘또’로 ‘復次’는 ‘다음으로’ 혹은 ‘또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글자는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또’란 뜻으로 ‘又是’도 본문에 수록되어 있다.

‘藏亦名如來’와 ‘復次’, ‘樂’과 ‘故’, ‘諸佛’도 伯2200, 斯316, 斯890, 斯5289, 방산석경, 재조본에는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지만 伯2120에만 없어 아마 필사할 때에 빠뜨린 것으로 생각된다.

‘念’이 伯2120에만 ‘起’로 수록되어 있고 돈황본과 재조본 및 방산석경에는 동일하게 ‘念’으로 표기되어 있다. 원문은 ‘知心無念’으로 ‘마음은 생각이 없는 무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誤字로 판단된다.

斯316의 본문에 표기된 ‘不令’이 斯890, 伯2120, 伯2200에는 ‘令不’로 도치되어 있는 것으로 ‘~하지 않게 하다’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不’은 조동사로 혼자 독립되어 쓰이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다른 동사 위에 얹혀 그 동사와 더불어 쓰이는 것이 오늘날 문법의 구조라면 당시 중국어의 문법 차이로 위치가 바뀐 것이라 생각된다.

‘涅槃故一切菩薩’과 ‘因之修行入佛智故當知過去菩薩’, ‘依此法’, ‘德’ 등은 돈황본에는 없는데, 재조본과 방산석경에는 수록되어 있다. 이는 후대에 간행할 때 내용을 새로 추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돈황본과 재조본·방산석경의 대교를 보면 대부분 본문 내용이 삭제된 것이 많고, 간혹 생략되었거나 誤字, 倒置 및 異體字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넷째, 돈황본 「대승기신론」의 주석서인 「起信論疏」는 신라의 원효가 지은 것으로 大正新修大藏經과 교감의 내용을 보면 dx00824의 2행의 ‘別’이 대정신수대장경에는 생략된 것으로 ‘分段別苦’를 나타내는데 ‘分段’에 대응하여 ‘別苦’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가능하게 된다. 돈황본 7행의 ‘者’가 신수대장경에는 ‘者是’로 수록되어 있는데, 본문은 ‘修遠離法者, 是顯三賢位中修也’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者, 是…’의 문장으로 원효소에 자주 사용되며 그 뜻은 ‘…은 …이다’를 나타내고 있다.⁵³⁾ 8-9행 ‘乃至久遠熏習力故者。是顯十義地修道位中修萬行也’에 있는 ‘者’와 ‘義’는 신수대장경의 본문 ‘乃至久遠熏習力故。是顯十地修道位中修萬行也’로 두 字는 없다. 돈황본 ‘者’와 ‘義’를 자세히 보면 두 글자 위에 희미하게 점이 있는 것으로 아마 衍文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dx08241B 6행의 ‘現’도 신수대장경에는 ‘現於’로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謂依能見現於境相’으로 표기되어 있다. 의미상 ‘於’는 전치사의 줄임으로 대상인 ‘境相’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돈황본에서는 ‘於’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53) 평위엔, 앞의 글, 167 참고.

8행의 ‘是’는 신수대장경에서 ‘是阿’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此三皆是阿梨耶識位所有差別’로 ‘阿梨耶’를 뜻하는 것으로 돈황본에서 ‘阿’를 누락시킨 것이라 생각된다.

斯7520의 2행에 있는 ‘遍’이 ‘通’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문장을 보면 ‘…識者通而言之’와 ‘以分別用強通緣諸事故’로 되어 있지만 돈황본 ‘遍’과 ‘通’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원호소 권상의 다른 부분의 본문과 『大乘起信論別記』의 문장에서도 ‘以分別用強通緣諸事故’ 표기되어 있다. 평위엔의 발표문에는 이런 이유를 들어 앞뒤의 문맥에 있어 돈황본에 ‘遍’字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다.⁵⁴⁾ 8행의 ‘業’이 신수대장경에는 ‘業識’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돈황본의 다른 부분의 본문에서는 ‘但取業識’과 ‘非讀無明所起業識’처럼 ‘業識’을 함께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돈황본에서 ‘業’字 다음에 ‘識’을 실수로 누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斯7520의 14행 2자 ‘說’이 신수대장경에는 ‘就’로 14행 7자의 ‘境’은 ‘境說’로 되어 있는데, 돈황본 내용은 ‘是說如實空門境也’가 신수대장경에서는 ‘是就如實空門境說也’로 표기되어 있다. 두 내용의 구조는 다르지만 의미는 바뀌지 않는 것으로 중국어 문법에는 동사로서의 ‘說’은 앞에 놓는 것이 통례이지만 고대 신라나 일본어에서는 ‘說’을 뒤에 놓는 것이 문법에 보다 가깝다고 하였다.⁵⁵⁾

BD12261의 5행에 ‘碍石’이 신수대장경에는 ‘礙’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체자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大乘起信論』의 주석서로 元曉가 編纂한 『起信論疏』와 大正新修大藏經을 대교한 결과, 省略되었거나 追加된 경우와 異體字 등으로 파악되었다.

54) 평위엔, 앞의 글, 168 참고.

55) 평위엔, 앞의 글, 168.

<참고문헌>

- 初雕本 「大乘起信論 卷上」.
再雕本 「大乘起信論 卷上下」.
房山石經本 「大乘起信論」.
大正新修大藏經 「大乘起信論」.
「韓國寺刹全書 1」.
甘肅成敦煌文獻編輯委員會. 「甘肅藏敦煌文獻」.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1999.
고승학. “大乘起信論에서 깨달음과薰習의 관계.” 『불교학연구』 제4호(2002. 6). 89-108.
金邦龍. “大乘起信論에 관한 연구: 一心・二門・三大思想을 중심으로.” 『韓國宗教』(圓光大學校宗教問題研究所). 第21輯(1996). 89-105.
金聖洙. “寺刹講院 四教科 教材의 刊行에 관한 考察.” 『創立十周年 紀念論文集』(청주대학교대학원 도서관학과) Vol. 1993. 55-81.
李羨林 主編. 「敦煌學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9.
명위연. “定源. 敦煌사본에서 발견된 신라 元曉의 저술에 대하여. 동아시아 고대 불교사본의 연구현황.” 『인문한국(HK)지원사업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초청강연회 및 학술세미나』(2010). 161-175.
馬鳴지음, 愍山大師풀이, 송찬우 옮김. 「大乘起信論」. 서울: 세계사, 1993.
朴太源. “新羅佛敎의 大乘起信論 研究.”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Vol.14. No.1(1993). 46-67.
법공. “대승기신론에 대한 소고” 『修多羅』(海印寺僧伽大學) 第二號(불기2532). 97.
上海古籍出版社法國國家圖書館 編. 「法國國家圖書館藏 法藏敦煌西域文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서광스님.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大乘起信論」」. 서울: 불광출판사, 2004.
석길암. “근현대한국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연구사.” 『불교학리뷰』(금강대학교불교문화연구소) 2권(2007). 9-39.

- 俄羅斯科學出版社東方文學部 編. 「俄藏敦煌文獻」. 俄羅斯科學院東方研究所
聖彼得堡分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 俄羅斯科學出版社東方文學部 編. 「俄藏黑水城文獻」. 俄羅斯科學院東方研究所
聖彼得堡分所. 上海: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上海古籍出版社, 1996.
- 李箕永. 「元曉思想 1, 世界觀」. 서울: 弘法院. 1967.
- 吳杲山 編譯. 「大乘起信論講義」. 서울: 寶蓮閣, 1980.
- 유진보 지음, 전인초 역주. 「돈황학이란 무엇인가」(대우학술총서 555). 서울: 아카
넷, 2003.
- 은정희. 「대승기신론강의」. 서울: 예문서원, 2008.
- 은정희 지음. 「은정희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의」(불교총서 10). 서울: 예문서원,
2010.
- 全鍾植. “大乘起信論을 통해 본 法性偈(華嚴一乘法界圖)연구.” 「불교학연구」
Vol.17(2007). 113-159.
- 鄭舜日. “大乘起信論의 성립과 構造.” 「동양종교학」 Vol.1(1991). 21-27.
- 정승석 편저. 「고려대장경해제」(全5권). 고려대장경연구소, 1998.
- 中國國家圖書館編・任繼愈 主編. 「敦煌遺書」.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5.
-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編. 「英國敦煌文獻」(漢文佛經以外部分). 中國: 四
川人民出版社, 1995.
- 최연식. “「大乘起信論」과 동아시아불교사상의 전개.” 「불교학리뷰」(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창간호(2006. 1). 59-61.
- 黃永武 主編. 「敦煌寶藏」. 上海: 驪江出版社, 1995.